

유기된 사체에서 발견된 개미의 종류와 계절별 변동

임채석, 류동표¹, 이동운², 양재윤³, 추호렬³

경상대학교 농생물학과, ¹식물검역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²상주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³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경남 진주지역에서 사체를 유기하였을 때 찾아오는 곤충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닭의 사체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3년 9월 28일부터 2004년 9월 27일까지 1년간 조사하였다. 가을은 2003년 9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겨울은 12월 23일부터 2004년 5월 16일까지, 봄은 5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여름은 7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각 조사하였다. 닭의 사체는 산, 들, 하우스, 하천, 논, 집, 옥상, 밭에 설치하여 모든 종의 곤충을 채집하였는데, 본 발표에서는 개미만을 기술하였다. 채집된 개미는 15종 2661개체로 우점종은 주름개미(*Tetramorium tsushimae*)(1167개체)였다. 계절적으로는 봄(347개체), 여름(359개체), 겨울(420개체)은 주름개미(*T. tsushimae*)가 우점종이었고, 가을(73개체)은 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e*)가 우점종이었다. 사체의 매장 유무와 상관없이 방문하는 개미의 종은 차이가 없었다. 산과 들에서의 우점종은 차이를 보였다. 산에는 극동흑개미(*Pheidole fervida*)와 스미드개미(*Paratrechina flavipes*)가 우점종이었지만 들에서는 주름개미(*T. tsushimae*)와 고동털개미(*Lasius japonicus*)가 우점종이었다. 사쿠라개미(*Paratrechina sakurae*)는 밭에서만 채집되었다.